

치유농업, 정신의료기관 실증... 효과 입증

농진청, 비약물적 심리 지원 기술로 조현병 환자... 우울 고위험군 프로그램 2종 개발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 해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이상 인구의 9.7%가 최근 1년간 우울감을 경험했고, 조현병은 인구 100명 중 1명이 겪는 것으로 보고됐다. 정신질환 유병률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지역 사회에 기반한 비약물적 치료 수단으로 치유농업 활용이 부각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약물 중심인 기존 정신질환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약물적 심리 지원 기술로 치유농업에 주목하고, 그 효과를 의료기관 현장 실증을 통해 입증했다. 연구진은 조현병 환자와 우울 고위험군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2종을 개발했다. 먼저 '조현병 환자를 위한 '긍정심

리모형(모델) 프로그램'은 식물을 재배, 관리하는 과정에서 몰입과 행복감 등의 정서를 회복하고 자신의 감정을 발견하도록 구성했다. 조현병은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정신질환으로, 주로 양성증상, 음성증상, 일반 정신병리증상이 나타난다. 양성증상은 환각, 망상 비논리적 사고, 기이한 행동이며, 음성증상은 감정 표현 감소, 무의욕, 사회적 위축, 무언어증, 쾌감 상실이다. 일반정신병리증상은 우울감, 불안,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이다. 프로그램 적용 결과, 치유농업을 병행한 조현병 환자군은 기존 약물치료 중심의 병의원 치료만 받은 집단보다 음성증상이 10% 감소, 일반정신병리증상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적용 전후 효과도 뚜렷해 심장 안정도는 전보다 12%, 자율신경 활성도는 13% 향상됐고,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은 각각 13%, 일반정신병리증상은 12% 줄었다. 우울 고위험군을 위한 '인지행동전략 프로그램'은 파중, 수확, 수확 후 활용에 이르는 식물생애주기를 사용자 삶에 연계해 부정적이나 왜곡된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우울 고위험군 또한 치유농업 적용 전보다 우울감이 30% 감소했다. 감정 안정과 내면 성찰 능력 향상을 보여주는 상대적 세타파(RT)는 29% 증가했고,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나타내는 상대적 알파파(RA)도 18% 증가했다. 이번 실증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북

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 신세계병원에서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70여 명(입원·외래진료 환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참여자를 두 집단으로 나눠, 한쪽은 기존 치료만 다른 쪽은 기존 치료와 더불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주 1회, 총 10~12회 병행했다. 특히,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입회한 가운데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실제 의료수가를 청구함으로써 치유농업의 의료 현장 적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청구한 의료수가는 '작업과 오락요법', '지지 표현적 집단정신치료' 항목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기관과 정신건강 증진기관 연계 상호협력모형(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실증과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 결과를 종합 이달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내 정신건강 증진기관 9곳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오상근 기자



전개공, 중대재해처벌법 외부전문가 초청 특별교육

전북개발공사는 16일 1층 대강당에서 임직원 및 관리사업장의 현장 소장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외부전문가 초청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권위자인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판례분석 △공공기관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실무적용 사례 등이 다뤄졌다. 전북개발공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현장 안전점검 강화, 안전관리 매뉴얼 재정비, 안전보건 전담조직 확대 등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 김대근 사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우리 공사의 최우선 가치이자 도민과 약속"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 86.8%, 인력난 해소하는 고용허가제 만족스러워

중기중앙회, 한국어 소통 능력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꼽아

중소기업중앙회는 2024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기업 1,177개사를 대상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6.8%가 현행 고용허가제에 만족한다고 답하여 고용허가제 신청에서 근로자 채용까지 제도 전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반면, 정책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만사항으로 △신청절차 복잡(31.6%) △신청 후 입국까지 긴 시간 소요(22.1%) △사업장변경 제도(12.3%) 등이 꼽혔다.

특히,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 등 사업체에서는 필수 근무 기간을 설정하는 등 변경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역시 79.1%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일정, 국적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만족 이유로 △언어 소통(한국어 실력 부족)(61.7%) △낮은 생산성 및 근태 문제(18.4%)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12.9%)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EPS-TOPIK(외국인력 한국어 시험)의 점수가 높아도 실제 소

통이 어려워 점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태업을 하며 원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근로자들로 인해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의 이원화된 행정체제로 인해 재고용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이 있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진청 김대현 원예작물부장, 평택 봄배추 재배 현장·이천 비축시설 방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김대현 부장은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 봄배추 재배지와 이천에 있는 저장시설을 방문해 배추 수급 불안에 대비, 배추 생육 상황과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한 융복합 협업프로젝트를 통해 봄배추 안정 생산과 장기저장 기술 개발, 토양 병해충 방제, 기계화, 준고랭지 재배면적 확대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평택 농가를 방문한 김대현 부장은 시설 봄배추에서 주로 발생하는 꽃대 오름(추대), 끝부분이 타는 현상(팁번)을 예방하려면 꽃대가 늦게 올라오는(만주대성) 품종을 선택하고 비닐을

덮어주는 등 보온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끝이 타는 현상(팁번) 예방을 위해 숙익이 차기 시작할(결구 초기) 뒤부터 토양 수분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부장은 이천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기지에서도 배추 저장 현장을 둘러보고,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수확후관리 통합(패키지) 기술' 적용 방안을 협의했다. /오상근 기자

기재부 고객만족도조사 '우수'

전기안전공사, 고객의 목소리 관리시스템 구축 등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4년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82개 공공기관(공기업 20곳, 준정부기관 52곳, 기타공공기관 1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찾아가는 방문형 컨설팅과 안전관리자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고객의 목소리(VOC)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이번 고객만족도조사

주요 평가 항목(전반적 고객만족, 서비스 품질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며, 3년 연속 고객만족도 향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고객의 안전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공사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기안전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전기안전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전북 익산형 일자리 상생 공동물류·공동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익산형 일자리 지원사업 설명회

바이오진흥원, 하림산업물류센터·글라이드 입점 소개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16일 익산 웨스턴타이프호텔에서 전북 익산형 일자리 상생 공동물류·공동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익산 지역 내 30개 기업과 익산시청,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협동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모델과 기업 중심의 지원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5년도 전북 익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방향 △온라인 물류센터 입점 및 운영 계획 △지원 내용 및 절차 △공동마케팅 운영계획 등이 안내 되었으며, 이어진 질의응답 및 개별상담을 통해 참여 기업들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였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익산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공정개선 등

기술 고도화 지원은 물론 공동물류비와 마케팅비 등을 포함한 수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익산의 성공적인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지역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익산시 기업일자리과 관계자는 "익산형 일자리를 통하여 지역과 기업,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익산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이 참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바이오진흥원은 17일부터 '전북 익산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익산시청 및 진흥원 공식 채널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오상근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